News p/03

전두환 '셀프훈장' 9개 반납

메트로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제2818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돌아온 '킬러 박' 1골1도움

민주 정기국회 전면참여 결정

NEWS p/02

올겨울 강추위 일찍 찾아온다

NEWS p/03

LIFE p/12

Entertainment p/16
"윤아언니 눈빛연기 탐나"

metro
메트로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제2818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한국 레슬링 14년만에 금

유제품 가격도 인상예고… 인상 구겨진 주부들 서울우유가 지난달 원유가격을 ℓ당 220원 올리기로 한데 이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빙그레 등이 이번주부터 ℓ당 200원 안팎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우윳값 인상의 물꼬가 터졌다. 이번 우윳값 인상은 원유값 인상폭의 두 배에 달하는 데다 '바나나맛 우유' 등 가공유와 발효유, 치즈 등의 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 사진은 23일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우유 가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암기력 97.5% 기적 일군 '2대8' (<재미> <교육>)

영어공부 교재 '이인혜 학습기'로 대박행진 정성은 위버스마인드 대표

/송진원기자 pmw

세상에 재미난 공부 없지만 게임과 같은 중독성 승부수 좌우뇌 동시에 자극 뇌새김 전국 50개 학교서 교재채택

교육과 게임만큼 상극이 또 있을까. 수많은 업체들이 '에듀테인먼트'(교육+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란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도전했지만 뚜렷한 성공을 거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이인혜 학습기'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뇌새김' 시리즈를 만든 위버스마인드를 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30만~1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인데도 올 1분기에만 55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기 때문이다. 모바일게임 업계 게임빌 창업 멤버 출신 정성은(37·사진) 대표에게 성공 비법을 들어봤다.

"에듀테인먼트에 도전했던 수많은 업체들이 학습에서 재미를 찾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재미 요소를 너무 강화한 나머지 학습 효과를 떨어뜨려 고객들에게 외면받았죠. 재미있는 게임보다 몰입도 높은 게임이 대박을 터뜨리는 것처럼 교육 콘텐츠도 성취·경쟁·수집욕 등의 자극을 통해 '중독' 같은 몰입감을 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게임업계 출신다운 답변이다. 단순히 재미있거나 교육 효과가 높은 것만 가지고는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힘들다는 것을 게임본부장 경험을 통해 정 대표는 알아냈다. 정 대표가 현장에서 만난 고객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덕분에 교육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적 황금비가 '8대2'(교육 80%, 재미 20%)라는 사실도 발견됐다. 정 대표의 설명처럼 뇌새김 시리즈는 재미를 강조한 다른 교육 콘텐츠처럼 화려하지 않다. 어휘나 회화 문장을 상황에 적합한 단순한 그림과 함께 보여준다. 하지만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와 그림에 반응하는 우뇌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시너지를 낸다.

"뇌새김 시리즈로 공부하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찍듯이 기억하게 됩니다. 자체 실험에서 97.5%라는 놀라운 암기결과를 보였을 정도죠. 학생들만 아니라 입소문을 듣고 구입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뇌새김 시리즈는 공교육에서 사용되는 몇 안 되는 학습기다. 현재 전국 50여 개 학교에서 정규 교과 또는 방과 후 학습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2011년 일부 중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 사용하고 싶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반신반의했는데 교육 3주 후에 본 시험 성적이 평균 30점을 넘었죠. 시험 점수 덕분에 칭찬받은 것이 처음이라며 활짝 웃던 학생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09년 2월에 설립된 위버스마인드는 5년이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 벤처로 성장했다. 2011년 65억원, 2012년 100억원 등 매년 30% 가까이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영어·일본어에 이어 다음달 중국어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어서 올해 예상 매출 180억원 달성도 너끈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에는 5초 안에 관심을 끌고 5분 안에 재미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후 50분 후에 쉽게 끝내기 어렵겠다는 좌절을 주면 대박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뇌새김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서울 코엑스와 광화문, 강남 교보문고에 마련한 체험센터에서 5분만 투자한다면 누구나 외국어정복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내년 수능 올해보다 1주일 늦은 11월13일 시행

수준별 영어 결국 폐지

현재 고교 2학년들이 보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년 11월 13일 시행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확정안'을 발표하고 2015학년도 수능은 올해(11월 7일)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11월 13일 목요일에 시행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수준별 수능의 경우 국어·수학은 유지, 영어는 폐지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2015학년도 '통합' 영어 출제 범위는 기존 A형의 출제 과목인 '영어Ⅰ'과 B형의 출제 과목인 '영어Ⅱ'로 한다.

전형 수는 수시 3개(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논술·실기 위주)와 정시 2개(수능·실기 위주)로 축소하고, 예체능·사범·종교계열은 예외를 인정했다.

전형 체계 중 입학사정관 전형의 명칭은 쓰지 않지만 학교 현장에서 해당 전형이 폐지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입학사정관 참여를 명시했다.

대학 모집 요강은 입시 준비를 위해 현행 5월 말에서 4월 말로 앞당긴다.

현재 수시 1·2차로 나뉜 수시전형은 원서 접수 시기를 하나로 통합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험생은 6개 이상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대학은 수시전형의 경우 내년 9월 6~18일 사이에 원서를 접수하고 9월 6일~12월 4일 중 시행해야 한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2월 19~24일 사이에 4일 이상 이뤄진다. 전형은 2015년 1월 2~29일 모집군별로 시행하며 추가모집은 2015년 2월 16~23일까지다.

대입전형 마감일은 2015년 2월 25일로 현재(2월 말)보다 다소 앞당겨졌다.

/차유리기자 grass100@

박 대통령 '복지 후퇴' 직접 해명

26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 기초연금 국고 지원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애초에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는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 지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상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야당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민준기자

초·중·고생 4만6104명 "자살 생각해 본 적 있다"

초·중·고교생 2.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3일 올해 5~7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 211만9962명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한 결과 정서·행동 발달상 문제로 위험 수준이 높아 전문기관 상담 등을 의뢰해야 하는 '우선관리군'이 4만6104명(2.2%)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은 7.2% 15만2640명으로 나타났다. 우선관리군은 초등생 0.7%, 중학생 3.5%, 고교생 3.0%로 중학생 비율이 높았다. 관심군은 초등학생이 3.4%, 중학생이 11.0%, 고교생이 9.0%로 나타났다. /김유리기자

이젠 상임위가 '전쟁터'

민주, 정기국회 전면참여 결정 - 전국 순회 장외투쟁도 병행키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소속 의원들에게 원내 투쟁에 전념해달라며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결정하고, 여당과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내·외 병행 투쟁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며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원외투쟁 이외의 일로는 국회를 떠나지 말고, 잠도 국회에서 쪽잠을 자면서 무섭게 공부하고 준비해 국정감사에 임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전병헌 원내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해 원내 투쟁을 이끌 것을 제안한 뒤 "원내대표부터 본부장실에 침낭을 갖다놓고 24시간 비상 체제로 국회 운영을 지휘하면서 여당과 국정감사 등의 국회 일정 협상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원외투쟁도 강화돼야 한다. 전국의 원외지역위원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투쟁'의 기운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전국 순회 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사회 및 여론 주도층 인사들과의 '국민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일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시작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54일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3주 동안 사실상 공전됐던 정기국회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박선은기자 mik.m@metroseoul.co.kr

"해직자 가입 허용 규약 한달내 안 고치면 법외노조"

최후통첩 받은 위기의 전교조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고용부는 23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전교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같은 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올해 5월과 6월에도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법외 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한진주기자 mjlam@metroseoul.co.kr

가을 낚는 강태공들 추분인 23일 남대천 하구의 가을 낚시터에서 강태공들이 감성돔과 전어, 숭어 등을 낚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겨울 11월부터 춥고 12월엔 큰눈 올듯

올겨울 추위가 매서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이 23일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11월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12월에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됐다.

11월 평균기온은 평년(4~12도)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31~80㎜)보다 적겠다고 내다봤다.

본격적인 추위는 12월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추운 날이 많고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서해안 지방에는 많은 눈을 뿌릴 것으로 예측됐다.

12월 기온은 평년(-3~6.5도)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15~42㎜)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0월은 초반에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김도훈기자

"명절 피로 풀어요" 23일 경기 수원 비드바노 한의지원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며 명절 피로를 풀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 '셀프 훈장' 9개 자진반납

전두환 전 대통령이 훈장 9개를 정부에 자진 반납했다.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06년 취소된 훈장 9개를 지난달 3일 반납했다. 2006년 훈장이 취소되고 나서 환수 절차가 진행된 지 7년 만이다.

반납한 훈장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12·12 군사반란 이후부터 대통령 재임 시절 직접 자신에게 수여한 훈장이다.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소된 훈장 11개를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

정부는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2006년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들은 반납을 거부해왔다. /한진주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벤 존슨 서울올림픽 육상 100m 금메달

1988년 9월 24일 서울올림픽 남자 육상 100m 결승이 펼쳐진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LA올림픽 4관왕의 칼 루이스와 캐나다의 벤 존슨이 나란히 출발선에 섰다. 출발 신호와 함께 10초도 안 된 사이 결과는 존슨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9초79의 세계신기록.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뒤 소변검사 결과 존슨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세계를 경악시켰고 금메달은 박탈되어 루이스에게 돌아갔다. 존슨은 그 후의 국제대회에서 또 금지약물 복용이 드러나 육상계에서 영구 제명되고 말았다.

넥타이 휘날리며 G밸리 함께 달려요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사진)의 이색 축제 'G밸리넥타이마라톤 대회'가 27일 구로디지털단지 일대에서 열린다.

넥타이마라톤 대회는 참가자 모두가 넥타이를 매고 구로디지털단지 일대 5km 코스를 달리는 미니 마라톤 행사다.

목, 머리, 손목, 허리 등에 각양각색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참가자들과 행사 모습이 각종 언론에 소개되며 구로구만의 이색 축제로 자리 잡았다.

◆ 취업박람회, 건강상담도 진행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기업인이 주민을 초대해 함께 즐기는 '주민문화축제'로 진행된다.

구로구와 구로구 상공회(회장 신명진)가 함께 준비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넥타이마라톤 이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주요 행사로는 ▲취업박람회 ▲관내 기업체 홍보전 ▲건강관리 상담 등이 진행된다. 또한 동호회의 다양한 공연이 마련되고 넥타이 스티커도 무료로 제공된다.

◆ 참가비 무료… 구로구민 아니라도 가능

이 대회는 27일 오후 2시 구로디지털단지 내 마리오아울렛 앞에서 출발해 가리봉 오거리~남구로역~구로구청 사거리~구로구청역(대림역)~디지털단지에이스트윈타워앞 결승점으로 이어지는 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구로 구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단 넥타이 지참은 필수다. 희망자는 24일까지 대회 홈페이지(http://gtforum.co.kr), 구로구상공회 팩스(855-3089), (사)한국마라톤협회 팩스(2647-5225)를 활용해 접수하면 된다.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고 대회 종료와 동시에 시상식도 거행된다.

주민과 기업인이 어우러지는 주민문화축제라는 변화된 콘셉트에 맞게 시상 내역에도 변화를 줬다. 10인 이상이 동시에 도착한 팀 중 1~5위는 성적우수상을 수여한다. CEO와 근로자가 함께 완주한 이들에게 주는 노사화합상도 마련됐다.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한 참가자를 위한 특별상도 준비됐다.

서울 구로구가 지난해 주최한 넥타이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넥타이를 맨 채 출발점을 지나고 있다. /구로구 제공

구로에만 있는 이색축제 '넥타이마라톤 대회' 27일 열려
넥타이 매면 누구나 출전… 올해는 기업·주민 화합잔치

◆ 구로구 가을축제 '점프! 구로' 도 27~29일 개최

넥타이마라톤과 더불어 구로구 가을 축제 '점프! 구로 2013'도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안양천, 구로디지털단지 등 구로구 곳곳에서 진행된다.

'명품 구로 올레길 걷기 행사'를 비롯,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구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또 안양천 메인 무대 주변에서는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가 설치되고 어린이 테마파크, 디지털구로 과학축전, 아트마켓 등도 축제 기간 내내 상설 운영된다. 문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02)860-2856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 점프! 구로 2013 주요 일정

일자	일정
27일(금)	오후 2시 G밸리넥타이마라톤 대회(마리오아울렛) 오후 6시30분 개막식 축하공연(안양천 메인무대) 오후 7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안양천 메인무대)
28일(토)	오전 7시 명품 구로 올레길 걷기 행사(개봉역) 오후 1시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안양천 메인무대) 오후 7시 1318 락 페스티벌(안양천 메인무대)
29일(일)	오후 1시 다문화가족 페스티벌(디큐브광장) 오후 3시 구민 노래자랑(안양천 메인무대) 오후 6시30분 [illegible] 스토리, 국가유공자불꽃놀이(안양천 메인무대)

◆ 점프! 구로 2013 상설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구로 먹거리 천국	보쌈·전어·족발·편의점 등 (27~29일, 오전 11시, 안양천 메인 행사장)
아트마켓	수공예품 전시·판매 (27~29일, 오전 11시~안양천 메인 행사장)
디지털구로 행복과학 축전	체험학습 프로그램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 (28~29일, 오전 11시~안양천 메인 행사장)
가족사진 포토존	구로사진작가회의 즉석 사진 촬영 (28~29일, 오전 11시~안양천 메인 행사장)
구로 건강·행복 키오 플래폼	대사증후군 검사 및 상담, 의약품 안전 정보제공 등 (28~29일, 오전 11시, 안양천 메인 행사장)
구로 디지털 사진공모전	축제 기간 중 촬영한 사진 공모 (구로문화원 주관, 축제 행사장 곳곳)

조선족 "도전! 관광통역안내사"

매년 中관광객 방한 러시 자격증 시험 응시자 급증

국내에 거주 중인 재한 조선족의 관광통역안내사 지원 비중이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어권에서 국내를 방문한 관광객은 약 380만 명이다. 이들을 가이드할 국내 공인 관광통역안내사는 현재 5270명 규모로 215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중 응시율이 가장 높은 언어는 중국어로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전체의 66%가 중국어에 응시했다. 이 중 다수는 조선족이다. 조선족은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에 능숙하고 중국인 관광객 특성을 잘 알아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로서 장점을 갖췄다.

체계적인 관광통역안내사시험 준비를 위해 교육기관을 찾는 유학생도 활발하다.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코스모진 관광아카데미는 단기간에 관광산업 이론과 실무 교육, 현장 실습 등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격증 시험 대비 면접 노하우도 전수한다. 문의 02)318-0110 www.tourjob.co.kr /유슬기기자

청년들의 첫 직장 '알바 권리장전' 선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명시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이 제정됐다.

서울시는 23일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사용자 의무 시의 직무 등을 26개 조문에 담은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권리장전에 담긴 청년의 권리는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을 받을 권리 등이다. 사용자 의무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 지급의 원칙 등이 있으며 서울시는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진다.

시는 또 이날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등 프랜차이즈 기업·협회 10곳, 청년단체 청년유니온과 공동 선언 및 협약식을 맺고 권리장전의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 적용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임금, 휴일 등이 명기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도 공개했다. 구로·성동·서대문·노원 노동복지센터에는 알바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유슬기기자

구청소식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축제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일부터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 축제'를 연다.

평생학습도시 선포식과 함께 작가 김애란, 배우 이다연이 출연하는 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문의 02)2116-3993

의료문화관광특구 명칭 공모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국제적 의료문화관광 중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명칭 공모에 나선다. 다음달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총 상금은 100만원이다. 문의 02)2600-5944

28일 성대골에너지축제 열려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28일 도화공원에서 제2회 성대골 에너지 축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연다. 재활용품 가면 퍼레이드, 자전거 발전기로 영화 상영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문의 02)820-2537

생각하면 할수록
새차살땐 신차 장기렌터카
kt 금호 렌터카

metro Russia

Метеорит породил новую религию

metro Sweden

mycket mer pengar får
nboken

스웨덴 직장인 평균월급 무려 506만원

스웨덴 직장인들이 신났다. 스웨덴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올해 2.5% 올랐기 때문. 게다가 내년에는 그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의 기쁨이 배가되고 있다. 스웨덴 직장인들은 월평균 2만9800크로나, 약 506만6000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임금 인상분은 매달 약 750크로나(약 13만원)를 더 받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정책조정처 관계자는 국제적인 경제위기 속에 스웨덴이 수출주도형 요인으로 강력을 통해 가치와 세금이 오르지 않은 점을 꼽았다.

metro Brazil

UFRJ vai gerar energia para concessionária

대학 주차장 지붕에 태양전지판 설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이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태양광 나무'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브라질 환경부의 태양광 에너지 주차장 건립 허가 결정에 따른 것. 리우주 당국은 이번 프로젝트가 국가 에너지 발전에 선구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감안, 1년에 700만 헤알(약 32억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 '태양광 나무'는 캠퍼스 내 외의 주차장 지붕을 태양전지판으로 만들며 대학의 주요 에너지 동력원이 될 전망이다. 태양전지판 크기는 20제곱미터(㎡)이며 5개당 100㎾의 전력이 생산된다.

metro Chile

"제발 살려줘요" 북극곰의 비명

칠레인 3000명 자전거 시위

"북극곰의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최근 칠레인 3000여 명이 남반구에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진행한 '북극곰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이스 라이드(Ice Ride)'로 불리는 평화 시위는 전 세계 115개 도시에서 열렸다.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해 콘셉시온, 발파라이소, 테무코 등 4개 도시가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칠레 주요 도시에서 열린 이번 시위에는 환경운동가들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가족 단위 시위대가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시민들은 현장에서 시선을 끌기 위해 흰색 옷을 입고 나왔고 페이스페인팅을 이용해 북극곰처럼 얼굴을 하얗게 분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행사를 기획한 마티아스 아순 그린피스 칠레지부장은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는 대규모 행진은 평화적이고 친밀감이 높은 시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극은 세계인류 유산으로 지정, 환경보호 구역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북극 지키기' 운동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북극해를 떠다니는 유빙의 75%가 녹아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석유회사들은 북극 생태계를 파괴하며 해넌 석유 시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얼음이 사라져 살 곳을 잃은 북극곰의 생존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펀드에이 세풀베다 기자 · 정리=조선미 기자

운석 앞 머리 조아리는 이들

"돌 속에 지구 종말 신비한 힘과 신의 계시 숨겨져 있다" · 러시아에 신흥 종교집단 출현

러시아에 면발을 신봉하는 '스파게티 괴물교'에 이어 운석을 신봉하는 신흥 종교 집단이 생겨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바 '운석교' 신도들은 지난 2월 첼랴빈스크주 체바르쿨호수에 운석우(隕石雨)가 내린 당시 떨어진 운석을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다.

이들은 "운석에 담겨있는 소중한 우주 정보를 통해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며 "시리아 사태도 사전에 예견했다"고 말했다.

첼랴빈스크 운석 교회의 안드레이 브레이비치코 목사는 "뉴에이지 시대의 선봉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세상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이제 곧 운석의 꿈을 깨어 새로운 시대인 물병자리의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비치코 목사는 "지구에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운석에 숨겨져 있다"며 "신의 계시가 운석을 통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운석이 떨어지기 전부터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스러운 운석을 모실 수 있는 큰 교회를 지을 예정"이라면서 "주민들은 체바르쿨호수에 남아있는 운석을 건져내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전달해야 하며 러시아 정교회도 운석 교회를 정식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석교는 러시아에서 교회로 정식 등록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회 측에서 체바르쿨호수의 운석을 건져 올려도 공식적으로 운석을 소유할 권리가 없다.

이와 관련, 스바토 필라레테 정교회 신학교의 알렉산드르 코피로프스키 교수는 "러시아 정교회는 이 신흥 집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한 가지 우습고 귀여운 에피소드로 간주할 뿐"이라고 말했다.

코피로프스키 교수는 "이들이 내세우는 운석이 지구 종말에 대해 암시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이는 해당 교회의 홍보 활동"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첼랴빈스크주에는 지난 2월 운석우가 쏟아져 주민 1000여 명이 다쳤으며 파손된 가옥도 수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야 루드카 기자 · 정리=조선미 기자

하나투어리스트
마감 임박
BIG
Special Day! 매일매일 놀라운 가격
SALE
빅세일은 경쟁력 있는 항공 요금으로 생성된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을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실속있는 상품입니다.
중국/대만여행
천년의 중국, 백년의 중국!
북경 ★ 만리장성/마사지 4일 250,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황산 ★ 밀랑여행 4일/5일 49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상해/항주/주가각 4일 24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장사/장가계/원가계 4일/5일/6일 54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대만(야류,온천,화련) 4일 64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동남아여행
놀라움과 모험이 가득한 세상!
방콕/파타야 4일/5일/6일 24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보라카이 4일/5일 24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푸껫 휴양지의 여왕 5일/6일 29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세부 낭만의 섬 4일/5일/6일 19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5일 39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일본여행
알뜰만족 실속 일본여행!
오사카 ★ 고베야경 3일/4일 44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도쿄/시즈오카(하코네) 3일/4일 39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규슈 온천여행 3일 42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대마도 부산출발 2일/3일 14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북해도 3일/4일 599,000부터
▶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예약문의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1212
1600-6963
www.hanatourist.com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2005.41 (+3.83)	코스닥	527.07 (-0.04)
금리	2.80 (-0.05)	환율	1075.00 (-8.50)

다중 대출자 노린 '통대환 대출' 주의보

여러 개의 대출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해주겠다며 사채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통대환 대출'에 대해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의 불법 알선을 통해 신용 세탁을 한 채무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사채로 제2금융권 대출을 상환한 뒤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카페를 통해 다중 채무자에게 접근,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을 걸고 사채로 기존 대출을 갚아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올린 뒤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기자

뉴스 & 뉴스

인형이야 침대야? 23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마트 빅마켓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미국 인크레더베드사의 동물인형 침대 커버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정금리 가계대출 감소세

●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0%로 6월 말 23.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낮아진 것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는 최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민지기자

펀드 슈퍼마켓 오늘 문연다

●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펀드를 검토해보고 가입도 할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이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23일 펀드슈퍼마켓 설립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펀드슈퍼마켓 운영법인인 '펀드온라인 코리아 주식회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펀드온라인 코리아의 자문현 대표이사와 40여개 출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김현정기자

우리투자증권 인수 4파전

●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비 입찰을 한 달 앞둔 현재 우리투자증권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KB금융, 농협금융, 대신증권, 파인스트리트그룹 등 4곳이다.

KB금융과 농협금융은 비은행 강화 차원에서, 대신증권은 증권사 1위 도약을 위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파인스트리트그룹은 인수를 통해 종합 금융그룹을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황윤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갑희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855

2005년 1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456

위기의 동양그룹, 오리온도 외면

'동서' 담철곤 회장 부부 1조대 CP 상환자금 지원 거절

재계 38위 동양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혈투와 회생'인 동서그룹 오리온이 공식적으로 지원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다 채권단까지 등을 돌리면서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졌다.

오리온은 23일 "오리온그룹과 대주주들은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으며 향후에도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1조1000억원 상환을 위해 오리온 대주주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12.91%)과 이화경 부회장(14.49%)이 보유한 오리온 지분 15~20%를 담보로 5000억~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계획을 마련해놓고 지원을 요청했다.

담 회장 부부가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담보로 내놓으면 ABS를 5000억~7000억원 정도만 발행해 CP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부부, 오리온의 담 회장과 이 부회장 부부는 추석 때 동양그룹의 만기 도래 CP 상환 지원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담 회장 부부가 15~20%에 이르는 오리온 지분을 담보로 내놓다가 오리온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온그룹이 동양그룹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절한 23일 서울 여의도 동양증권 로비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채권단도 추가 지원 '난색'

동양그룹 측은 오리온의 지원 불가 발표에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왔다는 게 그룹 측 설명이지만 지금까지 유동성을 CP나 회사채, 단기 차입금 등으로 충당해온 데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추가 자금 조달 묘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동양그룹은 투자자에게 판매한 CP 1조1000억원 외에 채권단 보유 여신도 9000억원 정도에 이른다.

같은 날 채권단도 동양에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였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액이 커서 쉽지 않다. 오리온이 동양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부도 처리될 수 있어 추가 지원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un@metroseoul.co.kr

'공유형 모기지' 상담 받으세요 연 1%대 저리로 빌려주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를 일주일여 앞둔 23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창구에서 사전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전 상담은 30일까지 진행되며 정식 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받는다. /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물량 전년비 14배

하반기 서울 2만6000가구 부동산 시장 활력 기대

올해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2만6000여 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4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시세도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8·28 대책 이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46%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꾸준한 수요자가 유입되는 지역인 만큼 향후 집값 반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재추진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서울 강남3구인 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 중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92곳에 달한다.

닥터아파트 리서치팀 권일 팀장은 "강남의 경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에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주택 공급과 지역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건설사들도 하반기 알짜 재개발·재건축 단지 찾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 최대 재건축 사업인 고덕주공2단지 사업은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SK건설 컨소시엄이 수주에 성공했다. /김민지기자

외국인 누적 투자액 반년만에 순매수로

최근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Buy Korea)' 행진이 계속되면서 올들어 외국인이 사들인 한국 주식 누적액이 반년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로 돌아섰다.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여건상 당분간 코스피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달러 기준으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한 연간 누적 액수는 지난 16일에 3억3516만 달러 순매수로 돌아서고 17일에는 7억1603만 달러 순매수로 불어났다.

외국인의 누적 투자액이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15일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까지 19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8조원 넘게 사들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이 부각되고 원화 주가 정상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외국인의 사자 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지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양적완화 유지)로 안해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아졌으므로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FOMC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은 10~1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정기자

'후불제 폰 개통' 문제많네

통신연체자·신불자 불법 가입 휴대폰깡 등 부작용

통신요금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도 후불형 요금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불법 사례가 '휴대전화깡' 범죄 악용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연체자·신용불량자에게 작업비를 요구한 뒤 등급을 올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신요금 연체의 경우 이통 3사 중 연체가 없는 이통사로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이통 3사 모두 연체가 있는 경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등급 조정 작업을 통해 할부 개통도 정상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통신요금 연체 100만원당 5만원의 작업 수수료를 받고 등급을 재조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99만원의 통신요금 연체가 있다면 5만원, 101만원의 연체가 있는 사람이라면 10만원을 내면 연체를 무시하고 후불제 요금제로 개통될 수 있도록 전산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용자들이 일시적인 빚 탕감 등을 위해 되파는 '일명 휴대전화깡'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이렇게 팔아버린 스마트폰과 명의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해외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렇게 명의가 넘어간 휴대전화는 후불형 요금제의 경우 소액 결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후 수백만원의 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는 "통신요금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도 작업 수수료만 낸다면 1~2일 내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전산 작업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ja0433@metroseoul.co.kr

K2 다운재킷 마조람3 출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아웃도어 브랜드 K2의 헤비다운재킷 마조람3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노년 병원비 덜어주는 효자

건강 문제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노인들은 소소한 병원비도 큰 부담이 된다. 병원비 걱정으로 작은 병을 방치하다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경우, 의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AIG손해보험의 '명품부모님보험'은 노년층을 위한 노년 전문보험으로 출시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노년층에 자주 발생하는 시청각질환 및 인공관절 수술비는 물론 각종 중대 질병을 모두 보장해준다. 골절·화상의 경우 지급률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중병은 최초 1회에 한해 각각 500만원씩 지급한다. 또 백내장·중이염 등의 시청각질환 수술비는 50만원, 인공관절 수술비는 3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60세 남자 기준 월 2만50원이며, 50~7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80-432-0166)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홈페이지(www.aig.co.kr)에서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본기자

뉴스 & 뉴스

제조업 4분기 BSI 악화

●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올 4분기 경기가 3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94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4분기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금 사정(30.3%)이 꼽혔다. /장윤희기자

국정원 '화이트 해커 대회'

●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보안전문가(화이트 해커)를 선발하는 '화이트햇 콘테스트' 본선대회를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한다. 일반부에는 총 상금 5000만원과 국방부 장관상을, 청소년부는 총 상금 3000만원과 국가정보원장 상장이 수여된다. /박선옥기자

제일모직 '패션' 팔고 소재 올인

삼성에버랜드에 1조대 양도 후계구도 정리수순 해석도

제일모직이 59년을 지켜온 패션 사업에서 손을 뗀다.

제일모직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패션 사업을 삼성에버랜드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양도가액은 1조500억원으로 12월 1일자로 패션 사업의 자산과 인력 등을 모두 이관할 계획이다.

제일모직은 패션 사업 양도로 확보한 자금을 전자재료·화학 등 소재 사업에 집중 투자해 초일류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일모직은 이미 소재 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후계 구도를 위한 정리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에버랜드의 사업 확대는 이 부회장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회장의 차녀인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사장이 애착을 가지고 패션 사업을 추진해온 점에 비춰 이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지원기자

사진 전문가 돼볼까 23일 삼성전자가 사진 강좌를 듣고 촬영 실습을 할 수 있는 삼성 스마트 카메라 스튜디오 를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 6층에 열었다 /삼성전자 제공

체구 작아도 빵빵 터지는 '무선 스피커'

꼼꼼 IT리뷰 LG전자 NP3530

음향기기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이 줄 이다

LG전자 포터블 스피커 NP3530은 줄 거래을 없앤 무선 제품으로 삼각 원통 모양의 아담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길이 19cm 측면 6.5cm로 야외 나들이 때 갖고 다니기 좋다 근거리무선통신(NFC)과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해 스마트폰이나 PC에 저장된 음악을 연동해 감상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리모컨처럼 사용된다

음질은 예상보다 뛰어났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나오는 풍부한 사운드는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는 데 어울려 보인다 통화 기능도 지원되고 배터리 용량은 최대 충전 시 10시간까지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다만 무선 접속 환경이 안 좋으면 음악 재생이 불안정할 수 있고 전용 앱을 일일이 내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가격은 15만원대로 출력이 높은 NP6530 모델은 40만원대다 /김연희기자 unime@

'LTE 달리기' 선수교체 왜!

"지금보다 빠른 데이터 속도 정말 필요해?"

무선 데이터 속도가 유선 데이터(광랜 100Mbps)보다 더 빠른 시대가 왔지만 과연 이 같은 무선 데이터 속도를 이용자들이 제값을 주고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광범위를 무선(LTE)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데 광대역 LTE 나 'LTE-A'로 갈아탈 필요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우리가 더 빠르다'라는 속도전 경쟁이 한창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A 전국 서비스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데 이어 KT는 지난 14일 오후 9시를 기해 광대역 LTE 상용 서비스 개시로 맞불을 놨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내년 3월에나 서비스할 수 있는 광역시의 경우 LTE-A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LTE-A는 멀티캐리어(MC) 기술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두 가지 주파수를 하나로 묶어주는 캐리어 어그레이션(CA)을 이용해 통신 속도를 끌어올린 서비스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CA 모듈이 적용된 단말기를 이용해야 최대 150Mbps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LTE 가입자가 굳이 새 단말기를 구입해 LTE-A로 갈아타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존 서비스 충분히 빠른데
이통업계 끝모를 속도 경쟁
광대역 또는 A 갈아탈수록
더 비싼 '요금 부메랑' 주의

실제로 비싼 단말기를 구입해 고속도 고성능을 느끼려던 일부 이용자들은 데이터 요금 폭탄에 시달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직장인 김민성(30)씨는 자신이 쓰던 LTE 휴대전화 단말기를 부모님께 드리고 최신형 LTE-A 단말기를 구입했다 아름 이용해 다양한 동영상을 보고 뉴스를 시청하던 그는 다음달 날아온 요금 고지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기존 LTE 단말기를 이용할 때와 비슷한 형태로 이용했는데 데이터 이용량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LTE에서 LTE-A 휴대전화 단말기로 바꾸며 데이터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게 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기존 주파수 대역의 폭만 넓힌 광대역 LTE 역시 기존 LTE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해도 최대 100Mbps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통사가 빠른 데이터 속도로 더 많은 데이터 이용을 유인해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용자들 스스로가 과도한 데이터 이용에 주의하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y483@metroseoul.co.kr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CNN이 '가을, 한국 찾아야할 이유'로 꼽은 축제 27일부터 열흘간 18개국 세계인과 '열정 대방출'

가슴 뛰는 축제의 즐거움, 열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의 벅찬 감동.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하 탈춤축제)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경북 안동시 탈춤공원과 하회마을에서 펼쳐진다.

인류는 탈을 착용함으로써 스스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왔는데 이번 탈춤축제 역시 신명이 펼치는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꿈꾸는 세상, 염원의 탄생을 만들어간다. 같은 꿈을 꾸는 18개국(러시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루나이·캄보디아 등) 세계인들도 스스로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탈판에 함께 한다.

내 탈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축제장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계의 모든 탈이 있는 '마스크샵'에서 탈을 만들거나 구입할 수 있다. 탈에 따라 자연스럽게 꾸미게 되는 의상 역시 마스크샵에서 구매 혹은 대여해 축제장을 마음껏 누빌 수 있다.

새로운 경험으로 축제의 즐거움을 선사해줄 축제의 공식 댄스 '탈랄라 댄스' 역시 기다리고 있다. 나만의 탈을 쓰고 축제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가슴 터질 듯한 음악과 함께 탈랄라 댄스를 추는 축제, 생각만으로 즐겁다.

세계탈놀이경연대회도 놓칠 수 없다. 댄스, 마임, 퍼포먼스, 드라마 등 사람들과 다양한 춤이 어우러져 축제의 열기를 드높여줄 한마당이다. 1만 명이 함께 모인 '탈놀이 대동난장'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탈춤의 생명감을 안겨줄 것이다. 세계 60개국 500여 점의 탈이 전시된 '세계탈 전시회' 등도 마련됐다.

외국인 인지도가 가장 높은 한국의 축제는 탈춤축제다. 미국 CNN go에서는 가을철 한국을 찾아야 할 10가지 이유 중 하나로 탈춤축제를 꼽기도 했다. 탈을 만드는 즐거움, 탈을 쓰며 느끼는 오묘함, 탈춤을 추며 느끼는 폭발적 경험, 상상이 현실이 되는 탈춤축제, 그 흥미로운 장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정재용기자

왼쪽부터 지난해 축제에 참가한 중국 운남성 공연팀, 올해 축제에 참여하게 될 대만극 '소리의 이야기'

권영세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이사장(안동시장)

격식 훌훌 '신명 한마당'

탈을 쓰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즐겁다고 합니다. 사회적 격식이 없어짐으로써 인간 본성의 신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즐거움과 경험을 이 탈춤축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축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대표 탈춤인 하회탈춤을 비롯해 문화재로 지정된 12개의 전통 탈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18개국의 외국 탈놀이 공연단도 함께합니다. 보다 다양한 나라의 탈과 탈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탈의 의미를 이어받은 마당극과 인형극 등 다양한 문화마당, 탈놀이 체험마당, 국내외 탈춤 배우기, 축제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거리와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탈을 쓴 사람들의 춤과 놀이의 경연 '세계탈놀이경연대회' 등 동체 '1만명의 대동마당'이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10일간 700여 개의 공연과 전시를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뛰고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탈춤축제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안동,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탈춤이 가진 즐거움과 즐거움이 주는 신명을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겠습니다. 이 즐거움이 다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스포츠 인기브랜드 '할인 빅리그'

온라인몰 아웃도어스 최대 70% 세일 행사

야외 활동이 잦은 가을철을 맞이 아웃도어스가 다양한 스포츠 아이템을 초특가에 선보인다.

온라인 아웃도어 전문 쇼핑몰 아웃도어스는 29일까지 스포츠 의류와 용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브랜드 빅리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스포츠 브랜드 중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헤드(HEAD)·이엑스알(EXR)·미즈노(MIZUNO) 등 3개 브랜드의 스포츠 의류와 슈즈를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5~20% 할인 쿠폰을 나눠주고, 아웃도어스 바로 가기 접속 시에는 1%를 바로 할인해준다. 이 밖에 KB카드 결제 시 구매 금액별로 5000원 또는 7000원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나이키·뉴발란스 등 베스트 슈즈 초특가전

'2013 베스트 슈즈 초특가전'도 마련됐다.

나이키·뉴발란스·푸마는 운동화와 러닝화를, 프로스펙스는 '연아슈즈'를 앞세워 워킹화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예정이다.

데상트·르꼬끄 스포르티브는 스포츠 종합 브랜드답게 올가을·겨울 트렌드에 맞는 스포츠 의류와 슈즈·가방 등을 위주로 선보인다.

아웃도어스닷컴 정수영 MD는 "이번 기획전은 단순한 운동용품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함께 구성했다"며 "특히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문의 www.outdous.com /서지훈기자

'아가씨와 건달들' 티켓 손짓

강강술래 홀피 경품행사 이달말까지 신청글 접수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추석 후 고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녹이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디재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먼저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 장애)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티켓과 신승식품의 추석 선물 (12인)을 무료로 증정한다.

'아가씨와 건달들'은 1929년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네 명의 청춘 남녀가 사랑과 명예, 꿈을 걸고 벌이는 인생 승부를 화려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류수영, 김우, 이하늬 등이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승식품의 한 국밥 형태의 '즉석국'인 '1인 3종'은 소고기육개장, 소고기된장국, 북엇국으로 구성돼 캠핑이나 낚시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는 물론 간편한 식사를 즐기는 직장인, 학생들에게 좋다.

명절증후군 극복을 위한 여행길을 떠나는 고객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힐링세트'를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찰진 우떡갈비'(1세트)와 족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족임자한돈너비아니'(2세트)로 구성된 힐링세트 A는 2만6400원(40% 할인), 한우양념불고기(900g)와 한돈양념구이(500g)로 구성된 힐링세트 B는 3만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환절기 기력 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9100원, 소용량 세트(350ml·5팩·10인분)는 2만2900원에 판매한다.

저소득층 관절염 줄기세포 무료치료

연세사랑병원-엄홍길 휴먼재단 '카티스템' 연골재생 후원 캠페인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인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새로운 치료법인 '줄기세포 치료'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많은 노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본격적인 후원 활동에 나섰다.

◆무릎 퇴행성관절염 조기 진단 줄기세포 치료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관절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하는 연골이 닳아 생기는 질환으로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어 손상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연골이 없어져버림으로써 무릎이 맞닿게 될 때 그 마찰로 인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주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질환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무릎관절 내 연골이 대부분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이 불가능한 연골의 특성으로 염증이 나타난 무릎관절 부위를 다듬은 뒤 인공으로 만들어진 관절을 이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기 진단을 통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초·중기 때 발견해 치료하는 '줄기세포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엑스레이(X-Ray) 촬영 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관절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조기 진단하는데 만약 조기 진단을 통해 무릎관절 상태가 퇴행성 관절염 초·중기로 나타났다면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줄기세포란 아직 분화하지 않은 어린 세포로, 줄기세포 치료는 무릎관절 병변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연골로 분화시켜 연골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는 환자의 신체(자가) 또는 태아의 탯줄(타가)에서 추출 가능하다.

산악인 엄홍길(왼쪽) 대장과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엄홍길휴먼재단-연세사랑병원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 후원 협약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는 최신 치료법인 만큼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일부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은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최근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과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엄홍길휴먼재단은 이번 후원을 주관하여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파트너인 연세사랑병원 측은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후원하게 되며 후원 대상자는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이다.

줄기세포 치료는 카티스템을 이용해 도포하는 방법으로 카티스템은 모든 성인 연령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치료는 주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침습 시술을 통해 시술 시간은 30~60분 정도, 입원 기간은 2~3일로 환자의 부담과 부작용이 적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줄기세포 치료는 그 효과가 대내외에서 인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 때문에 일부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치료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후원 협약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82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참여란을 통해 신청

최고 명의들의 맞춤 건강강좌

내달 4일 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4일 오후 1시부터 병원 김옥길홀과 대회의실 등 2개 장소에서 '100세 건강, 이야기 함께합니다'와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 강좌 등 주제로 한 다채로운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옥길홀에서 개최되는 '100세 건강, 이야기 함께합니다' 강좌에서는 뇌졸중, 오십견, 관절염,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6대 암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 강좌에서는 건강한 분만 태아 프로그래밍, 모유 수유, 성조숙증, 청소년 우울증, 성 리불순 등에 대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강연은 이화의료원을 대표하는 명의들이 맡았으며 강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벽면 부착용 시계가 제공된다.

또 이대목동병원은 각 건강강좌 중간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퀴즈를 내고 정답자에게는 건강검진권, 초음파 촬영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권(사진) 이대목동병원장은 "고객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와 정확한 의학 정보 전달을 위해 힘써온 이대목동병원의 지난 20년은 고객의 사랑으로 함께 이룬 역사"라며 "그동안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대목동병원 최고의 명의들과 함께하는 강좌를 마련한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서울시 어린이병원서 '발달장애 치료교육 엑스포'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26일 2013 발달장애 치료교육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 치료 및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의 특성, 치료 방법, 최신 치료 경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발달장애는 언어 발달을 포함한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결함, 반복적이고 특이한 행동이나 편향된 관심, 흥미, 집착 등을 보이는 질환이다. 문의 (02)570-8363

/황재용기자

<연예인 주식부자>

양현석 373억 줄어도 1위

1973억 보유 — 이수만·배용준·박진영 뒤이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연예인 주식 부자 1위를 지켰다.

2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양 대표는 보유 주식 평가액 1973억9000만원으로 1위를 고수했다. 그러나 연초에 비하면 11.4%(373억3000만원)가 줄어들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회장과 키이스트의 대주주인 배용준은 1576억9000만원과 306억6000만원으로 각각 2·3위에 올랐다. 이 회장도 연초보다 19.1%(373억3000만원) 감소했지만, 배용준은 키이스트의 주가 상승으로 20.3%(51억7000만원) 늘었다.

이 밖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대표와 SM C&C 주식을 보유한 장동건이 72억3000만원과 37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벌닷컴은 "16일 종가를 기준으로 보유한 상장사 주식 지분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연예인은 모두 9명"이라고 전했다.

한편 SM은 올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이 지난해보다 14.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2.9%나 급감한 반면, YG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48.5%와 56.8% 증가했다.

키이스트와 JYP는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이효리 섹시미 어디가겠어 이효리가 결혼 후 첫 뷰티 화보를 통해 변함 없이 섹시한 매력을 뽐냈다. '키스 더 라이드'라는 주제로 촬영한 한 패션 월간지 화보에서 가슴골이 드러나는 재킷 의상과 붉은 립스틱으로 강렬한 인상을 선사했다.

▶ "살아있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유순호기자

김재중 첫 솔로 정규앨범

JYJ 김재중이 다음달 말 첫 솔로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3일 "1월 미니앨범을 발표해 리패키지 앨범까지 총 20만 장을 완판시켜 첫 정규앨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미니앨범이 보컬 김재중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면 정규 1집은 보컬리스트로서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는 앨범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앨범을 발표하고 아시아 7개 도시 투어를 진행했던 김재중은 이번 앨범 출시 후에도 투어로 국내외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현재 그는 막바지 녹음 작업에 한창이다. /유순호기자

"문제아 교화 모습 감동적" "가해학생 이미지 포장 어이없어"

'송포유' 시청자 반응 극과 극

추석 연휴에 방송된 SBS 파일럿 프로그램 '송포유'가 엉뚱한 미화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이승철과 엄정화의 지도로 합창단원이 되며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21·22일 1회와 2회가 방영된 후 시청자들로부터 극과 극의 반응을 얻었다.

문제아 학생들을 교화시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는 호평을 받은 반면, 과거 폭행 사실을 무용담처럼 내보내 거센 반발도 샀다. 제작진은 "아이들은 땀에 젖은 적도 있다"는 등 일부 학생들의 경험을 여과 없이 내보냈고,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폭행 피해 학생임을 주장하며 "방송에서 가해 학생을 나쁜 이미지로 포장하는 게 어이가 없어 울었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이승철은 2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새 희망을 주고자 출연했다"면서 본인이 전과 9범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자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다. 어떻게 고교생이 전과 9범이 되나"고 해명했다. /유순환 기자

'금 나와라 뚝딱' 유종의 미

MBC 주말극 '금 나와라 뚝딱'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23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50회는 전국 기준 22.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마지막 회는 박현수(연정훈)와 이혼 위기에 처했던 유나(이상 한지혜) 모두 일과 사랑을 거머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 몽희는 디자이너로 성공했고 현수(연정훈)와 이혼 위기에 처했던 유나는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됐다. /탁진현 기자

"윤아 눈빛연기 배우고파"

'열애'로 배우 도전하는 서현

SBS 새 주말극 '열애'로 처음 연기에 도전하는 소녀시대 서현이 신인 배우로서 각오를 밝혔다.

본명인 서주현으로 연기자로 나서는 서현은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가수 경력은 있지만 연기는 처음이다. 신인 배우인 만큼 열심히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 세대의 갈등과 은원으로 인해 비극을 겪게 되는 세 남녀의 애절한 사랑과 치열한 성공을 다룬 이 드라마에서 그는 청초한 외모에 따스한 마음, 명철한 머리까지 갖춘 수의학과 여대생 한유림 역을 맡았다. 강무열(성훈)의 이역인 이원근과 호흡을 맞춰 풋풋하고 싱그러운 첫사랑 이야기를 그려낼 예정이다.

팀 멤버인 윤아·수영·유리·제시카에 이어 뒤늦게 드라마에 데뷔하게 된 서현은 "어릴 때부터 연기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싶고 오래갈 수 있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 섣급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연기를 해보니 너무 재미있다. 선배들에게 많이 배워가면서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윤아 언니의 눈빛, 수영 언니의 자연스러운 대사톤, 유리 언니의 몸매도, 제시카 언니의 대범함을 배우고 싶다"고 멤버들의 연기 장점을 설명한 뒤 "연기자로 데뷔하지 않은 멤버 중에는 효연 언니가 연기를 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원근은 "촬영장의 해피 바이러스"라며 상대역인 서현을 칭찬했다.

이 밖에 이 드라마에는 전광렬·성훈·최윤영·황신혜 등이 출연한다. 첫 방송은 28일.

/탁진현 기자 tak0427@metroseoul.co.kr

SBS '열애' 제작발표회에서 커플 포즈를 취하는 이원근·성훈과 서현. /뉴시스

'연기 외도' 이준·탑 가을 스크린 대결

각각 '배우는 배우다' '동창생' 주연 맡아 액션 열연

남성 아이돌 대표 주자인 엠블랙의 이준(왼쪽 사진)과 빅뱅의 탑(오른쪽)이 올 가을 스크린에서 액션 맞대결을 벌인다.

드라마와 영화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두 사람은 다음달 24일 개봉될 '배우는 배우다'와 11월 선보이는 '동창생'으로 각각 첫 주연 신고식을 치른다.

'배우는 배우다'는 '영화는 영화다' '풍산개'에 이어 김기덕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은 영화로 배우 탄생의 뒷이야기를 실감 나게 담아냈다. 이준은 단역에서 순식간에 스타가 된 오영의 거만한 모습을 비롯해 현실에 대한 분노, 연기와 배우에 대한 절박한 심경 등을 섬세하게 표현했고 강도 높은 액션신도 소화했다.

이준은 엠블랙으로 활동하기 전 할리우드 영화 '닌자 어쌔신'에서 비의 어린 시절인 10대 라이조 역할을 맡아 워쇼스키 감독에게 "슈퍼 굿"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후 '정글 피시 2'와 '아이리스 2'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정된 연기력을 보여줬다.

그는 최근 공개된 티저 예고편에서 파격적인 연기로 야누스적인 매력을 발산했고, 이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32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빅뱅의 탑은 '동창생'으로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냉혹한 킬러, 영화 '포화 속으로'에서 전쟁 속에 버려진 학도병을 맡아 강한 액션과 감성 연기를 동시에 선보인 바 있다.

'동창생'은 유일한 가족인 여동생(김유정)을 지키기 위해 남으로 내려가 공작원이 되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년의 운명을 그린 영화로, 탑은 고교생으로 위장한 공작원 리명훈 역을 맡아 강렬한 액션과 다양한 감정 연기를 소화했다. 영화사 측은 "이번 작품에서 탑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유순호기자

윤계상·고준희 로코물 '레드카펫' 크랭크업

내년 1~2월 공개 예정

윤계상(사진 오른쪽)·고준희(왼쪽)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레드카펫'이 모든 촬영을 마치고 개봉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주 경기 판교에서 이뤄진 마지막 촬영은 에로영화 전문 감독 정우(윤계상)와 아역스타 출신 여배우 은수(고준희)가 오해를 풀고 애틋한 감정을 주고받는 장면을 담았다. 이어 야간에는 정우 일행이 술자리에서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는 장면을 찍었다.

촬영 종료 후 윤계상은 "재미있는 동료들과 즐겁게 촬영했다"며 크랭크업 소감을 전했고, 고준희는 "첫 주연 영화이다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후반 작업을 거쳐 내년 1~2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조성준기자

송승헌 '인간중독' 주연공

송승헌(사진)이 멜로영화 '인간중독'의 주연을 맡는다.

23일 투자·배급사 뉴(NEW)에 따르면 송승헌은 베트남전이 배경인 이 영화에서 부하의 아내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는 대령 김진평을 연기한다. 송승헌은 "연출자인 김대우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던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품격과 '음란서생'의 강렬함, '방자전'의 절절함을 동시에 느꼈다. 배우로서 정말 욕심나는 캐릭터"라고 소감을 밝혔다. 내년 상반기 개봉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촬영에 들어간다.

/조성준기자

★보르코시건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20화 글·그림 이기

RIDIBOOKS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제공합니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펴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I get out of bed at about 7 o'clock every morning. 시간 순서대로 일상 말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I'm always tired when I come home from work.
B 아침에 대개 몇 시에 일어나는데?
A 난 매일 아침 7시쯤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B That's pretty early. Why do you get up so early?
A I need to eat my breakfast and get dressed.

정답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in the morning? / I get out of bed at about 7 o'clock every morning.

생생영어팁

▶ dress
옷을 입히다

dress는 '옷을 입히다', '옷을 차려 입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말에 get을 붙여서 get dressed라고 하면 옷을 차려 입는 과정을 중시하는 표현이 되죠. 정장을 차려 입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잠옷이나 운동복 등 편한 복장에서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be dressed up이라고 하면 평소보다 더 차려 입은 상태를 뜻합니다.

ex You're all dressed up. What's the occasion?
옷을 잘 차려 입었네! 오늘 무슨 일 있어?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시간 전치사 in

▶ in은 때를 나타낼 때 '~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연도, 세기	in 2011 2011년에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계절	in (the) spring/summer/fall/winter 봄/여름/가을/겨울에
월	in May 5월에 in October 10월에
오전, 오후, 저녁	in the morning/afternoon/evening 오전/오후/저녁에

▶ 짧은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요.

1 He was born in 2010. 그는 2010년에 태어났어요.
2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3 Her birthday is in February. 그녀의 생일은 2월이에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e sales invoice contains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_______ by the buyer and seller.
(A) agreeing upon (B) agreement
(C) agree (D) agreed to

02 Director Kawamura's _______ is that those with expertise in the field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final hiring decision.
(A) position (B) function
(C) classification (D) location

01. 매출 송장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합의한 모든 조건들이 들어있다
해설 문장의 본동사는 contains가 있기 때문에 동사 는 있는 ...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뒤의 '관계대명사 + be 동사'가 생략된 축약 구조(all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agreed to by ~)이므로 (D) agreed to를 써야 한다
어휘 sales invoice 매출 송장 contain ~이 들어 있다 terms and conditions (계약) 등의 조건
정답 (D) agreed to

02 카와무라 이사의 견해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최종 채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 문맥상 '이사의 입장, 견해'가 적합하므로 (A) position을 써야 한다. '견지, 입장'을 나타내는 stance도 답이 될 수 있다
어휘 expertise 및 전문성, 전문 지식 be responsible for ~을 책임지다 function 명 기능, 용도 classification 명 분류 location 명 위치
정답 (A) position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하기
인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시장/상점/식당
pay at the counter 계산대에서 지불하다
look around 주변을 둘러 보다
serve food to the customer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하다
toast with wine 건배하다
hold a drink 음료를 들다

거리/공원/역
walk along the path 길을 따라 걷다
stand in a group 무리 지어 서다
perform on the stage 무대에서 공연하다
walk in the crosswalk 횡단보도를 건너다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다

물가/해변
swim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하다
play in the water 물에서 놀다
ride a boat 배를 타다
suntan on the beach 해변에서 일광욕하다
wear a swimsuit 수영복을 입다

삼성 4년연속 '가을야구'

롯데 두산 꺾고 'PO 갈까?'

사상 처음으로 프로야구 정규리그 한국시리즈 3년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삼성 라이온즈가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롯데는 전날 설욕을 만회하며 가을 야구에 한 발 다가섰다.

삼성은 23일 대구구장에서 벌어진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채태인의 역전 투런포와 불펜의 철벽 계투를 엮어 4-1로 이겼다.

삼성은 이날까지 70승 2무 47패를 올리며 남은 9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4위를 확보했다. 전날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2위 LG 트윈스에 이어 두 번째로 가을 잔치 출전을 결정지었다.

6연승을 달린 삼성은 이날 경기가 없던 LG와의 승차를 다시 0.5경기로 벌렸다.

삼성은 단일 시즌 체제가 도입돼 현재 포스트시즌 제도가 자리잡은 1989년 이래 21차례나 가을 잔치 무대를 밟아 최고 명문구단의 위치를 지켜왔다. 삼성이 포스트시즌에서 빠진 해는 1994~1996년, 2009년 등 4번뿐이다.

롯데는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16안타를 몰아쳐 10-3으로 크게 이기고 하룻만에 6위에서 다시 5위로 올라섰다. 전날 어이없는 실책으로 넥센에 끝내기 패배를 당했으나 4위를 향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23일

■ 잠실

롯데	000	500	500	10
두산	200	001	000	3

■ 대구

한화	010	000	000	1
삼성	000	200	02X	4

스텐손 1000만달러 사나이

헨릭 스텐손(스웨덴)이 2013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스텐손은 23일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장(파70·715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줄이고 합계 13언더파 267타를 적어냈다.

1라운드부터 단독 선두를 질주하며 조던 스피스와 스티브 스트리커(이상 미국·10언더파 270타)의 추격을 여유 있게 따돌린 스텐손은 우승 상금 144만 달러(약 15억8000만원)와 보너스 상금(약 108억원)을 동시에 쓸어담는 대박을 터트렸고, 페덱스컵 랭킹에서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제치면서 1위에 올랐다.

한편 우즈는 PGA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통계 90점으로 개인 통산 11번째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조선호기자

스텐손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AP 뉴시스

환상의 뒤집기 류한수가 23일 열린 2013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전에서 아슬랑베키 알비에프(러시아)에게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AP 뉴시스

레슬링 14년만에 金 캤다

김현우·류한수 세계선수권서 나란히 금메달

지난해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현우(25·삼성생명)와 만년 유망주 류한수(25·상무)가 2013 시니어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14년만에 나란히 금을 캤다.

김현우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남자 그레코로만형 74kg급 결승에서 로만 블라소프(러시아)를 2-1로 물리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김현우는 런던올림픽 66kg급에서 한 체급을 올리자마자 2011년 세계선수권과 런던올림픽을 차례로 제패한 최강자 블라소프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같은 날 66kg급의 류한수는 아슬랑베키 알비에프(러시아)를 5-3으로 제압했다. 알비에프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09년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던 강호다.

이로써 한국 레슬링은 1999년 김인섭, 손상필, 김우용을 마지막으로 금맥이 끊겼던 세계선수권에서 부활을 알렸고,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의 선전을 예고했다.

/조선호기자 ahan@metroseoul.co.kr

넣고 돕고… 박지성 '킬러본능'

아약스전 1골 1도움

박지성(32·PSV 에인트호번)이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박지성은 22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필립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 시즌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지에(1부리그) 7라운드 아약스와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다. 에인트호번은 라이벌 아약스를 4-0으로 대파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에인트호번은 후반 8분 팀 마타브즈의 골을 시작으로 아약스를 몰아붙였다. 후반 16분 제트로 빌렘스가 페널티지역 정면까지 돌파한 후 수비수 한 명을 따돌리고 중거리슛으로 추가골을 뽑았다.

박지성은 후반 19분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다 가운데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오스카 힐리에미르크가 골로 연결해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시즌 첫 어시스트를 기록한 박지성은 후반 23분 수비 진영에서 넘어온 공을 잡아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골을 성공시켰다.

/유순호기자

해태

Korea Brand Power 1

2013년 7년연속 브랜드파워 1위

부라보

부라보 Lucky 7 페스티발

부라보콘 상단 내면에 **"당첨"**이 나오면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1등 LG 디오스 냉장고(820L) 3명
2등 삼성 LED TV(40인치) 4명
3등 아이패드4(16G) 8명
4등 삼성 로봇청소기 10명
5등 황금열쇠(금 3.75g) 20명
6등 부라보콘 1박스 100명
7등 영화관람권(1인 2매) 200명
행운상 문화상품권 1만원권 500명

※당첨 시 상단 내면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후, 당첨 인쇄된 상단부분 발송

자세한 참여방법은 www.ht.co.kr을 참조하세요.

행사기간 : 2013년 11월 20일까지

경품지급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5만원이상(1등~5등) 경품당첨자에게는 제세공과금(22%)이 부담됩니다

※실제 경품은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의 참여(경품수령)는 만 19세 이상 성인대상입니다